

한글 글꼴의 조형적 변천

박병천 경인교육대학교 명예 교수

1. 머리말

이 글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1443년에 창제된 후 현재까지 570여 년 동안 인쇄-출판용 한글 글꼴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15편의 한글 고전 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서체를 대상으로 변천사적 측면에서 밝힌 것이다.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 곧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언어학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 위상이 높아졌지만, 글꼴 자체의 서체적 가치에 대해 깊이 연구되거나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훈민정음 창제 이후 현재까지 한글의 서체인 글꼴의 변천을 밝혀 본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 하겠다.

한글 글꼴이란 용어는 서체(書體)적인 면, 자체(字體)적인 면, 폰트(font)적인 면 등에서 다양하게 혼용되고 있다. 한글 글꼴은 표현 방법에 따라 인쇄를 위한 활자나 목판에 의해 이루어진 판본체(版本體)가 있고 직접 필기구로 쓴 필사체(筆寫體)가 있다. 전자에는 바탕체[명

조체, 돋움체·고딕체 등 글자를 제도화(製圖化)하여 제작한 자체(字體)가 있고, 후자에는 정자체, 흘림체 등 펜글씨나 붓글씨체 등의 서체(書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시대 한글 창제 이후 현재까지 인쇄·출판을 위해 제작한 목활자, 금속활자, 목판본, 한글 폰트 등의 한글 글꼴을 대상으로 변천사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한글 글꼴은 조선 초기(15~16세기)의 《훈민정음》 해례본(14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글자인 돋움체 유형의 곧고 딱딱한 글꼴에서 출발하여, 조선 중기(17~18세기)의 《언해태산집요》(1608), 《노걸대언해》(중간본, 1745) 등에 나타나는 작아진 정자체 유형의 유연하고 정연한 글꼴을 거쳐, 조선 후기(19~20세기)의 《여사서》언해(목판본, 1907), 《삼성훈경》(1880) 등에서 보이는 더 작아진 간결한 획형의 글꼴로 변했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각종 활자 개발 활용 시대를 거쳐 돋움체, 바탕체, 궁체 등 컴퓨터용 서체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하면서 현대화한 한글 폰트의 출판 정보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상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 초기와 중기에 나온 고전 문헌 서체 10종과 조선 후기 고전 문헌 서체 3종 및 현대 폰트 2종 등 전체 15종의 글꼴을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한글 관련 고문헌이나 폰트에 나타나는 ①모음 글꼴, ②자음 글꼴, ③초중성 합자, ④초중종성 합자 등에 대한 집자(集字) 도판을 작성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 조선 초기: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몽화상법어약록》언해, 《훈몽자회》, 《경민편》
- 조선 중기: 《언해태산집요》, 《노걸대언해》, 《언해납약중

치방》, 《오륜행실도》, 《고산유고》

- 조선 후기: 《삼성훈경》, 《여사서》 언해, 《조선문직해》
- 현대 폰트: 견고딕체, 이미경궁체

한글 글꼴의 특징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문자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결구법(結構法)¹⁾과 자모음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는 용필법(用筆法)²⁾이 있다. 이러한 결구법과 용필법을 분석할 때는 고전 문헌의 한글 문자에 나타나는 자모음별 획형을 각각 분석하고, 다시 종합하여 합자별 글꼴의 특징을 찾아내야 한다.

이 글에서는 2장에서 한글 글꼴 변천 자료의 개황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한글 자모음 획형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4장에서는 한글 합자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을 밝히고, 5장에서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요약하고 제안적 의견을 밝혀 보고자 한다.

2. 한글 글꼴 자료의 개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글에서는 한글 창제 이후 현재까지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글꼴을 대상으로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글 고전 문헌 중 목판본, 활자본 13종과 현대 한글 폰트 2종 등 전

1) 결구법: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합자의 짜임을 결구라고 하고, 결구하는 방법을 결구법이라 한다. 이러한 합자의 결구 요소로 외형·간가·위치·중심(外形·間架·位置·中心) 등이 있다.

2) 용필법: 자모음의 기본 획형을 쓰는 방법을 용필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음과 모음 획형을 분석하는 요소로 대소·장단·방향·곡직·방원·조세·전절·접필(大小·長短·方向·曲直·方圓·粗細·轉折·接筆) 등이 있다.

체 15종을 표 1과 같이 시기별로 5종씩 선정하였다. 이같이 선정한 한글 고문헌과 한글 폰트 2종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글 고문헌 13종의 일반 서지 사항과 규격 및 형식적인 특징, 그리고 서체의 특징을 밝혀 본다.³⁾ 고전 문헌 명칭의 특징을 보면 문헌 원전이 순수 한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문본을 언해(諺解)했거나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간행한 것으로 밝혀진다. 그것은 문헌명의 앞뒤에 언해, 언해본, 해례본, 직해 등의 용어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고문헌은 국보이며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된 《훈민정음》 언해본,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 등으로, 대부분 중요 고문헌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서강대학교, 간송미술관, 한독의학박물관, 고산유물전시관, 세종대왕기념관, 동경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본들이다.

간행 시기별로 보면 조선 초기(15~16세기)인 1446년에 최초로 간행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5종, 조선 중기(17~18세기)에 간행한 5종, 조선 후기(19~20세기)에 간행한 3종 등을 선정하였다.

한글 글꼴의 판종(版種)은 목판본이 10종, 활자본이 2종, 석판본 1종이며 현대 한글 폰트로는 견고딕체 1종, 필사궁체 1종이다. 이들 고문헌의 문자 서체는 대부분 붓으로 쓴 듯한 부드러운 필사체 유형의 정자체이고, 돌움체(고딕체) 유형의 서체는 적은 편이다.

13종 고문헌의 권수는 1권짜리에서 5권짜리까지 있고, 장수(2면

3) 박병천(2011~2013), 한글 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연재 1~25회, 《월간 서예》, 서울미술문화원 발행. 한글 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연재 1~25회(2011년 9월호~2013년 9월호)에서 인쇄-출판용 서체 연재물 13종을 선정했다.

표 1 한글 글꼴의 변천사적 분석 자료 일람표

구분 시기		서지 사항						규격 및 형식			서체	
		문헌명	한자명	소장처	간행 연도	간행 관계자	판종	권수	장수	규격 cm	행수	서체
조선 초기	1	훈민정음 (해례본)	訓民正音 (解例本)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1446	세종 정인지 등	목판본	1	33	20.1 29.3	7 8	돋움체
	2	훈민정음 (언해본)	世宗御製訓民正音 (諺解本)	보물 745-1 호 서강대	1459	신미 수미 등	목판본	월인석보 1 권중부분	15	22.5 32.5	7	정자
	3	몽산화상 법어약록 (언해)	蒙山和尚法語略錄 (諺解)	보물 769호 세종기념관	1472	신미 번역	목판본	1	71	20.0 30.9	8	돋움체 (월인)
	4	훈몽자회	訓蒙字會	교토 예산문고	1527	최세진	활자본	3권 1책	59	20.0 29.2	10	정자
	5	경민편 (언해)	驚民編 (諺解)	규장각	1519	김정국	목판본	1	46	21.8 33.5	10	정자
조선 중기	1	언해태산 집요	諺解胎産集要	보물 1088호 국립중앙 도서관	1608	허준	목판본	1	81	23.3 36.8	11	정자
	2	노걸대언해	老乞大諺解	규장각 (평양김영판) 1745	-	목판본	2권 2책	133	23.0 36.0	10	정자	

구분 시기	서지 사항						규격 및 형식			서체		
	문헌명	한자명	소장처	간행 연도	간행 관계자	판종	권수	장수	규격 cm	행수	서체	
조선 후기 및 현대	3	인해남약 증치방	諡解蠟藥症治方	규장각	1700년대 말	내의원	목판본	1	37	22.3 33.3	10	정자
	4	오률행실도	五倫行實圖	세종기념관	1797	이병모 등	활자본	5권 4책	327	19.0 31.5	10	정자
	5	고산유고	孤山遺稿	고산유물 전시관	1796	윤선도 서정수 간행	목판본	6권 6책	17 (제6권)	22.5 34.0	10	정자
	1	삼성훈경	三聖訓經	박병천	1880	최성환	목판본	1	31	14.2 22.4	10	정자
	2	여사서 (언해)	女四書 (諺解)	세종기념관	1907	박만환	목판본	4권 2책	159	19.7 30.5	10	정자
현대	3	조선문지해	朝鮮文直解	박병천	1924	이진환	석판본 추경	1	8	15.0 22.0	8	정자
	4	현대 폰트 서체 개발	견고딕체	-	1990년대	-	폰트체	-	-	-	-	돋움체
	5	현대 폰트 서체 개발	이미경 궁체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2004	-	폰트체	1		2,350자	-	반흘림체

분량)는 8장에서 327장까지 다양하며, 책의 크기 역시 다양하여 가로 크기가 작은 것은 14cm에서 큰 것은 23cm까지 있고, 세로 크기는 22cm인 것부터 36cm가 되는 것이 있다. 책 1면의 판면에 나타나는 행수를 보면 적게는 7행에서 많게는 11행 형식이 있는데 10행짜리가 가장 많은 편이다. 면당 행수가 적은 것은 문자 1개의 크기가 큰 편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행수가 많아진 반면 문자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3. 한글 자모음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

3.1. 모음 획형의 글꼴 변천

한글 모음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약간 바꾸어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훈민정음》 해례본 순서: · ㅡ ㅣ ㅜ ㅓ ㅗ ㅛ ㅜ ㅟ ㅞ ㅟ (11자)
- 조형적 표기 순서: (점획모음 유형) · ㅡ ㅜ ㅛ ㅗ ㅟ (종모음 유형) ㅣ ㅓ ㅛ ㅗ ㅟ (11자)

조선 시대 13종의 한글 고문헌과 2종의 현대 폰트 문자에 나오는 점모음류 1종, 횡모음류 5종, 종모음류 5종 등 11종의 모음 획형을 조형적 표기 순서로 집자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문자의 기본 획형도

획형	•	—		/	□	○
관련 자모	ㅁ ㄴ ㄷ ㄹ 등 ㅏ ㅑ ㅓ ㅕ 등	ㅓ ㅕ ㅗ ㅛ	ㅏ ㅑ ㅓ ㅕ	ㅏ ㅑ ㅓ ㅕ	ㅏ ㅑ ㅓ ㅕ	ㅏ ㅑ ㅓ ㅕ
기본 획형						

3.1.1. 한글 글꼴의 생성과 조형적 특징

한글 글꼴은 《훈민정음》 해례본(1446)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한글 생성 원리와 기본 획형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⁴⁾

한글 자모 28자 중 11자가 모음인데, 중성은 하늘(天)의 둥글을 본떠 아래아(•)를 만들고, 땅(土)의 평평함을 본떠 ‘—’를 만들고, 사람[人]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를 만들었다. 이 같은 삼재(三才, 천지인)를 기본으로 서로 조합하여 1차로 ‘ㅏ, ㅑ, ㅓ, ㅕ’를, 2차로 ‘ㅗ, ㅛ, ㅜ, ㅠ, ㅡ, ㅣ’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글 547자와 한자 4,771자를 혼용하여 편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 서체는 전서체형, 한자 서체는 행서체이다. 특히 한글 문자는 서선(書線)을 굵게 나타내어서인지 한자보다 확실하고 크게 돋보인다. 한글의 글자꼴은 《훈민정음》 정인지 서문에 “象形而字倣古篆(상형이자방고전)”이라고 했듯이 한자의 전서체 글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⁵⁾ 이렇게 만들어진 자모음의 공통적인 기본 획형 ‘•, —, |, /,

4) 박병천(2011), 《훈민정음》 해례본 서체 해설, 《월간 서예》, 2011년 9월호(서울미술문화원 발행)에서 발췌.

ㅁ, ㅇ'의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글꼴의 규격과 획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자의 서선 획형을 보면 굵기를 일정하게 나타내되 처음과 끝 부분을 둥글게 원 획형으로 나타냈고, 서선의 방향을 가로선은 수평으로, 세로선은 수직으로, 사향 서선은 사향으로 대칭되게 나타냈다. 한글 서체의 획형은 예의편(수정 부분 제외)과 해례편이 서로 같으나 크기는 예의편이 1:1.14~1.20 정도로 조금 큰 편이다.

해례편의 기본 모음 ‘ㅡ’는 가로 15mm·세로 1.5mm, ‘ㅣ’는 가로 1.5mm·세로 14mm 정도로 가로선이나 세로선 굵기를 비슷하게 나타냈고, 기본 자음 ‘ㄱ’은 가로 13mm·세로 12.5mm, ‘ㅇ’은 가로 13mm·세로 12.5mm 정도로 가로 폭과 세로 폭을 각각 규격을 같게 하여 그린 문자같이 나타났다. 이른바 굴림체(환고딕체)로 그린 글자(레터링: lettering) 모양으로 나타났다.

- ‘·’는 원형의 큰 점은 독립된 ‘아래야’로 쓰이고 작은 점은 모음의 점으로, 원형이다.
- ‘ㅡ’는 수평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180도 수평이다.
- ‘ㅣ’는 수직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90도 수직이다.
- ‘/’은 사향선으로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우측 사선과 대칭 방향이다.

5) 《훈민정음》의 판각용 한자는 안평대군이 썼고, 한글은 강희안이 작도(作圖)한 것으로 추정한다.

- ‘ㄹ’은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4각이 직각을 이루되, 좌우 폭이 상하 폭보다 조금 크다.
- ‘ㅇ’은 선의 굵기가 일정한 원 모양을 이루되 좌우 폭을 상하 폭보다 조금 크게 나타냈다.

3.1.2. 한글 글꼴 변천의 조형적 특징

3.1.2.1. 조선 초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조선 초기 문자의 기본 획형은 그러서 나타난 환고딕체형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꼴을 시작으로 《월인석보》 1권(1459)의 어제 월인석보 서 부분 글꼴과 유사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글꼴과 이를 더 부드럽게 필사화한 《월인석보》 1권의 석보상절 서 부분과 유사한 《훈민정음》 언해본(1459)의 글꼴이 등장하게 된다. 즉, 기본 획형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이 둥근 원획으로 이루어진 환고딕체 유형부터 처음 부분은 각이 지게 뾰족하고 끝 부분은 둥글게 원획으로 나타난 첨환(尖圓)고딕형으로 나타난 글꼴까지 출현하게 된다.

그 후 1500년대에는 유연하게 나타난 《훈민정음》 언해본 모음 획형보다 더 유연한 《훈몽자회》(1527)와 《경민편》(1519)의 모음 획형이 나타난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나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ㅡ’나 ‘ㅣ’선은 굵기가 일정하고 직선형이며 운필 방향이 수평-수직이지만 《훈몽자회》나 《경민편》은 선의 굵기가 가운데는 가늘고 처음과 끝 부분은 굵고, 선의 굵기가 곡선적이며, 가로선의 방향이 수평선이 아닌 것으로 더욱 부드럽게 나타났다. 또한 《훈몽자회》나 《경민편》에서 ‘ㄴ, ㄹ, ㅁ, ㅂ’의 짧은 세로 방향의 선이나 점은 방향, 굵기, 길이, 접점 위치 등의 변화가 많고, 처음 부분을 구부려서 뾰족하게 나타났다. 가로선과 세로선의 끝 부분은 둥글고 굵게 나타내되 불규칙하

게 표현한 획형도 보이는 등 해례본 모음 획형보다 큰 변화를 보인다.

한편 모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래아(·)는 창제 직후 《용비어천가》(1447), 《석보상절》(1447), 《월인천강지곡》(1447), 《동국정운》(1448) 등에서는 원형으로 쓰이다가 《월인석보》(1459), 《훈민정음》 언해본(1459) 등의 획형부터는 사향물방울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3.1.2.2. 조선 중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17~18세기 조선 중기의 한글 문자 모음 중 좌상-우하 방향의 사향점(斜向點) 획형을 보면 17세기 초에 나온 《언해태산집요》(160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한 물방울 모양으로 시작하여 《고산유고》(1798)에 이르기까지 방향의 표현이 약간 바뀌고, 기본적인 획형은 강하거나(《언해납약증치방》), 부드러운(《고산유고》) 느낌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횡모음의 기본인 ‘ㅡ’획은 곡직(曲直) 표현에서 곧게 나타낸 것(《노걸대언해》, 《오륜행실도》)과 곡선적으로 나타낸 것(《언해납약증치방》)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ㅡ’를 기본으로 상하 위치에 세로선을 한 개나 두 개를 접필시켜 나타낸 횡모음이 있는데 두 점획의 길이·방향·접필 위치·깊이·유연성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면서도 문헌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종모음의 기본인 ‘ㅣ’획은 5개 문헌 모두 처음 부분(입필 부분)은 뾰족하게 구부렸다. 끝 부분(수필 부분) 획형은 《언해태산집요》와 《고산유고》는 뾰족하게 나타냈으나, 《노걸대언해》(1745)와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과 《오륜행실도》(1797)는 뾰족하게 나타냈다. 5종 고문헌의 종모음인 ‘ㅏ, ㅑ, ㅓ, ㅕ, ㅗ’의 세로획은 각

각의 기본 획형 ‘丨’와 같으나 수평점이나 치킴점은 접필 위치와 크기, 방향 등을 조금씩 다르게 나타냈다.

3.1.2.3. 조선 후기 모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2 참조)

19~20세기인 조선 후기 고문헌 《삼성훈경》(1880), 《여사서》 언해(1907)의 모음 획형은 조선 중기의 획형과 유사하나 조금 강하게 느껴진다. 한편 《훈민정음》에 대하여 해설을 한 《조선문직해》(1924)의 모음 글꼴은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와 유사하게 그린 글꼴로 나타났다.

아래아(·)의 획형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사향물 방울 획형을 강하게 나타냈고, 《조선문직해》는 원형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의 횡모음 기본 획인 ‘ㅡ’획은 조선 중기 《오륜행실도》 기본 획과 비슷하되 조금 더 강직한 느낌을 풍기지만, 《조선문직해》는 아주 다른 획형으로 나타났다. ‘ㄴ, ㄹ, ㅁ, ㅂ’의 가로획은 기본 획과 유사하나 짧은 획 표현을 보면 《삼성훈경》은 길이를 길게, 방향을 자유분방하게 나타냈으나 《여사서》 언해는 짧게 정돈된 느낌이 나게 표현했다. 반면 《조선문직해》는 가로획을 일정한 굵기로 현대 폰트 서체인 견고딕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로획인 ‘丨’획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입필 부분은 뾰족하게 구부렸고, 수필 부분은 가늘어지게 하거나 뭉툭하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조선문직해》는 입필-수필 부분을 수평으로 나타냈고, 굵기를 일정하게 수직 방향으로 아주 굵게 나타났다. ‘ㅌ, ㅊ, ㅍ, ㅋ’의 수평 방향 점획은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는 가볍게 사향으로 접필시켰으나, 《조선문직해》는 수평으로 굵게 접필시켜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2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모음 획형 비교도

서체		모음	점	획모음						정모음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ㆁ	ㅌ	ㅍ
조선 초기	1	훈민정음 (해례본)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2	훈민정음 (안해본)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3	문신화상 번어악록 (안해)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4	훈몽자회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5	경민편 (안해)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조선 중기	1	안해태신 집요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2	노걸대언해	ㄷ	ㅡ	ㄱ	ㄴ	ㅇ	ㅅ	ㅈ	ㅣ	ㅊ	ㅋ	ㅊ	ㅌ	ㅍ

모음		점	형모음					중모음				
			ㅡ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서체	3	연해남약 증치방	一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4	오물행신도	一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5	고산유고	一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1	삼성훈경	一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2	여사서 (안해)	一	ㅏ	ㅑ	ㅓ	ㅕ	ㅣ	ㅗ	ㅛ	ㅜ	ㅠ
조선 후기 및 현대		3	조선문적해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4	현대 폰트 고딕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5	현대 폰트 궁체	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는 수직선, 수평선과 같은 일정한 굵기의 직선 획형으로 나타냈고, 궁체는 반흘림체로 부드럽게 필사체 느낌이 나게 나타냈다.

3.2. 자음 획형의 글꼴 변천

한글 자음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자해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훈민정음》 해례본 순서: 아음 ㄱ ㅋ ㆁ, 설음 ㄷ ㅌ ㄴ, 순음 ㅂ ㅍ ㅃ, 치음 ㅅ ㅆ ㅈ, 후음 ㅇ ㅎ ㆁ, 반설음 ㄹ, 반치음 ㄷ (17자)
- 조형적 표기 순서: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ㅂ ㅍ ㅃ, 치음 ㅅ ㅆ ㅈ, 후음 ㅇ ㅎ ㆁ (17자)

17종의 자음 종류 획형 중에서 고문헌이나 현대 폰트 종류에 따라 활용을 하지 않은 ‘ㅇ, ㆁ, ㆁ’은 그림 3, 4에서와 같이 집자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했다.

3.2.1. 한글 글꼴의 생성과 조형적 특징

한글 자모 28자 중 자음 17종은 발음 기관의 어금니 모양을 본떠서 아음(牙音) ‘ㄱ’을, 혀의 모양을 본떠서 설음(舌音) ‘ㄴ’을, 입술 모양을 본떠서 순음(脣音) ‘ㅂ’을, 이의 모양을 본떠서 치음(齒音) ‘ㅅ’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후음(喉音) ‘ㅇ’을 만들고 이에 가획하거나 변체(變體)하여 12종을 만들었다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밝혔다.

따라서 기본 획형(그림 1)의 규격과 형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은 특

징의 서선이 조합되어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음 17종이 그림 3, 4와 같이 이루어졌다.

- ‘ㄴ’은 수평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180도 수평이다.
- ‘ㄷ’은 수직선으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90도 수직이다.
- ‘ㄹ’은 사향선으로 끝 부분은 둥근 모양으로 나타냈고, 방향은 우측 사선과 대칭 방향이다.
- ‘ㅁ’은 선의 굵기가 일정하고 네 각이 직각을 이루되, 좌우 폭이 상하 폭보다 조금 크다.
- ‘ㅇ’은 선의 굵기가 일정한 원모양을 이루되 좌우 폭을 상하 폭보다 조금 크게 나타냈다.

3.2.2. 한글 글꼴 변천의 조형적 특징

3.2.2.1. 조선 초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환고딯체형과 유사한 《훈민정음》 해례본(1446)의 자음 획형은 기본 획형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 획형을 둥근 원획으로 나타내고, 굵기를 일정하게 나타냈으며, 서선 방향을 수직-수평-대칭형 사향으로 나타내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직각으로 꺾어서 나타낸 특징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자음 획형이 유사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1472)에서는 처음 부분은 각이 지게 뾰족하게, 끝 부분은 둥글게 원획으로 나타낸 첨환고딯형의 글꼴이 출현하였다. 이후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의 자음 획형과 유사하되 서선의 굵기와 길이를 변화시키고 서선 방향을 다양화한 《훈민정음》 언해본과 《훈몽자회》의 자

그림 3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자음 획형 비교도 1

서체		모음			설음					습음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조선 초기	1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2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3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4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5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조선 중기	1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2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ㅂ	ㅅ	ㅊ

서체		모음			성음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3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4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5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조선 후기 및 현대	1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2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3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ㅍ
	4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5	ㄱ	ㅋ	-	ㄴ	ㄷ	ㅌ	ㄹ	ㅍ

그림 4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자음 화형 비교도 2

모음		처음				후음			병서자음		
		ㅅ	ㅈ	ㅊ	ㅌ	ㅇ	ㅁ	ㅇ	ㄱ	ㄷ	ㅂ
서체	1	ㅅ	ㅈ	ㅊ	ㅌ	ㅇ	ㅁ	ㅇ	ㄱ	ㄷ	ㅂ
	2	ㅅ	ㅈ	ㅊ	ㅌ	ㅇ	ㅁ	ㅇ			
	3	ㅅ	ㅈ	ㅊ	ㅌ	ㅇ	ㅁ	ㅇ			
	4	ㅅ	ㅈ	ㅊ	ㅌ	ㅇ	ㅁ	ㅇ			
조선 중기	5	ㅅ	ㅈ	ㅊ	ㅌ	ㅇ	ㅁ	ㅇ	ㅅ	ㅈ	ㅂ
	1	ㅅ	ㅈ	ㅊ	ㅌ	ㅇ	ㅁ	ㅇ			
	2	ㅅ	ㅈ	ㅊ	ㅌ	ㅇ	ㅁ	ㅇ			

서체	모음	처음				후음			병서지음		
		ㄱ	ㄴ	ㄷ	△	○	◌	ㅇ	ㄱ	ㄴ	ㅁ
3	연해남약 중치방	ㄱ	ㄴ	ㄷ	-	○	-	ㅇ	ㄱ		
	4	오류행실도	ㄱ	ㄴ	ㄷ	○	-	ㅇ	ㄱ		
	5	고산유고	ㄱ	ㄴ	ㄷ	○	-	ㅇ	ㄱ		
조선후기 및 현대	1	삼성훈경	ㄱ	ㄴ	ㄷ	○	-	ㅇ	ㄱ		
	2	여사서 (연해)	ㄱ	ㄴ	ㄷ	△	-	ㅇ	ㄱ		
	3	조선문적해	ㄱ	ㄴ	ㄷ	△	-	ㅇ	ㄱ		
	4	현대 폰트 고딕	ㄱ	ㄴ	ㄷ	○	-	ㅇ	ㄱ		
	5	현대 폰트 궁체	ㄱ	ㄴ	ㄷ	○	-	ㅇ	ㄱ		

음 획형이 등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음 획형의 가로 서선은 가늘게, 세로 서선은 굵게 나타내고, 서선을 강하게 하고 운필 방향은 크게 변화시킨 《정민편》의 자음 획형도 나타난다.

3.2.2.2. 조선 중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조선 중기에 나온 부드러운 필사형의 5종 고문헌에 나타나는 자음 글꼴 중에서 《언해태산집요》(1608)는 다른 고문헌의 자음 획형 선보다 더 정돈되고 굵은 모양을 보여 준다. 차분하고 정돈된 느낌이 나는 《노걸대언해》(1745)의 설음과 순음 종류의 자음 획형은 《오륜행실도》(1797)의 자음 획형과 가장 유사하고, 강하고 날카로움을 풍기는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은 《고산유고》(1798)와 유사함을 보여 준다.

5종 고문헌에 나오는 자음 중 설음 ㄷ, ㅌ의 획형 특징을 비교해 보면 《언해태산집요》는 조선 초기 표기 방법과 같이 위 첫 가로선을 아래 ㄴ 부분보다 왼쪽으로 더 나가게 나타냈으나 나머지 4종 자음 획형은 다르게 표현했다. 5종 고문헌 중 《오륜행실도》의 ㅌ 획형은 첫 가로선은 ㄷ 부분과 사이를 띄어서 나타냈다.

그리고 《노걸대언해》와 《언해납약증치방》의 치음 ‘ㅅ, ㅆ, ㅈ’은 다른 3종의 고문헌과는 다르게 마지막 끝 획을 수직 하향 방향으로 운필하기도 했다.

3.2.2.3. 조선 후기 자음 획형의 조형적 특징(그림 3, 4 참조)

3종의 고문헌 중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의 자음 획형은 가로 방향의 선을 가늘게, 세로 방향의 선을 굵게 나타낸 경우, 가로선의 방향을 높여서 나타낸 경우, 전체 획형을 간결하고 강하게 나타낸 경

우 등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설음 중 ‘ㄷ, ㅌ’ 획형의 첫 가로선을 ‘ㄴ’보다 왼쪽으로 나가지 않게 나타낸 것은 조선 중기 고문헌의 자음 획형 표현과 같은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삼성훈경》의 ‘ㅌ’은 조선 중기 《오륜행실도》의 ‘ㅌ’와 유사하게 첫 가로획을 아래의 ‘ㄷ’ 부분과 띄어서 나타냈고, 순음 ‘ㅂ’의 3, 4번 가로획을 2번 세로획과 띄어서 나타낸 획형은 12종 전체 고문헌의 ‘ㅂ’ 획형과는 다른 점이다.

《훈민정음》의 자음을 해설한 《조선문직해》(1924)의 자음 획형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자음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훈민정음》과 달리 기본이 되는 점과 선 사이를 띄어서 나타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모음의 기본선을 방획으로 나타낸 것에 반해 《조선문직해》에서는 원획으로 통일성 없이 나타났다. 또 순음 ‘ㅂ, ㅍ’ 획형을 곡선과 직선으로 막힌 도형처럼 나타낸 것도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점이다. 또 다른 고문헌 12종은 모두 ‘ㅇ, ㅈ, ㅎ’의 첫 점을 접 필시킨 데 반하여 《조선문직해》에서는 띄어서 나타났다. ‘ㄹ’ 획형은 아래 가로선을 좌우 사선과 띄어서 ‘A’ 모양으로 특이하게 나타내기도 했다. 이렇게 《조선문직해》에는 기이한 획형이 많은 편이다.

현대 한글 폰트인 견고딕체는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들의 방향, 길이, 외형 등과 비슷하지만,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를 다르게 나타낸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과 다른 점이다. 또한 견고딕체의 설음 ‘ㄷ, ㅌ’의 첫 가로획을 아래 가로획과 길이를 같게 나타낸 것 역시 《훈민정음》 해례본 자음 획형과 다른 점이다.

현대 한글 폰트인 이미경궁체는 반흘림체로 유연하고 연결성의 느낌을 찾아볼 수 있다.

4. 한글 합자 글꼴의 시기별 조형적 특징

4.1. 초중성 합자의 글꼴 변천

초성을 자음으로, 중성을 모음으로 하여 이루어진 합자의 초중성 조합 방법은 두 가지로, ‘가, 나, 다’자와 같이 좌측에 초성 자음을, 우측에 중성 모음을 배회한 좌우 위치 합자, ‘고, 노, 도’자와 같이 상측에 초성 자음을 하측에 중성 모음을 배회한 상하 위치 합자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림 5, 6과 같이 고문헌 13종과 현대 폰트 2종에서 좌우 위치 합자를 집자하여 결구적 특징을 살펴본다.

한글 초중성 합자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초성 자음 종류: 아음 ㄱ ㅋ ㆁ,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ㄹ ㅂ ㅅ, 치음 ㅅ ㅆ ㅈ ㅊ, 후음 ㅇ ㅗ ㅜ (17종)
- 중성 모음 종류: 종모음 ㅣ ㅑ ㅓ ㅕ

좌측에 초성 자음 17종과 우측에 종모음 ‘ㅣ, ㅑ, ㅓ, ㅕ’가 각각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자의 자형을 비교하고자 하지만 15종 고문헌과 한글 폰트에 같은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조선 중기의 합자는 몇 글자씩을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4.1.1. 조선 초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조선 초기의 좌우 위치 초중성 합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의 상하 폭 크기 차이가 작은 외형을 이루고 있는데 간행 연대가 1400년대부

터 1500년대로 갈수록 상하 폭 크기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합자의 좌우 폭 크기도 점점 좁아지는 키가 큰 문자가 등장하고, 자음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기울기도 수평, 수직에서 기울어지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 주며 일정한 굵기의 서선도 변화를 나타내는 합자로 변화였다.

최초의 합자인 15세기에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1446) 문자의 ① 좌우 폭과 상하 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외형, ② 자모음의 좌우 사이의 간가, ③ 오른쪽 모음에 대한 자음의 상하 위치 등의 자형적 특징은 점점 변화하여 16세기 말에 나온 《정민편》(1519)의 결구 특징은 큰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같은 합자 자형의 변화 정도는 《훈민정음》 해례본-《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훈민정음》 언해본-《훈몽자회》-《정민편》 순서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4.1.2. 조선 중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17~18세기 조선 중기 합자의 자형은 조선 초기 고문헌 5종에 나오는 17종의 비교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초성 자음 아, 설, 순, 치, 후음의 대표적인 합자인 ‘가, 나, 다, 라, 마, 차, 하’ 자를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조선 중기 합자는 조선 초기 합자와 비교할 때 문자의 외형, 자모음의 간가, 서선의 방향과 굵기, 자음의 크기와 위치 등이 크게 달라졌다. 전체적인 운필의 느낌이 직접 붓으로 쓴 듯 필사체의 서풍을 보여 준다.

합자의 상하 폭과 좌우 폭 크기 차이가 점점 커지는 순서, 즉 점점 키가 커진 합자의 외형은 《언해태산집요》(1608)-《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고산유고》(1798)-《오륜행실도》(1797)-《노걸대언해》(1745) 순서로 나타난다.

그림 5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성 합자 자형 비교도 1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ㆁ	ㄴ	ㄷ	ㅌ	ㄹ	ㅁ	ㅂ	ㅍ
서체	1	홍민정음 (해례본)	가	키	나	다	티	려	마	버	파
	2	홍민정음 (안해본)	가	크	나	타	터	라	마	비	펴
	3	몽신화상 번어악록 (안해)	가	캐	나	다	타	라	마	바	펴
	4	훈몽자회	가	가	겨	기	기	그	고	교	구
	5	경민편 (안해)	가	게		타	타	라	마	바	파
조선 중기	1	언해태산 집요	가	케		디	티	라	미	비	피
	2	노궈대전해	가			다		라	마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ㅁ	ㅂ	ㅍ
서체	언해남악 증치방	가			나	다		라	마		
	오로행실도	가			나	다		라	마		
	고산유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삼성훈경	가			나	다		라	마		
	여사서 (언해)	가			나	다		라	마		
조선 후기 및 현대	조선통지해	가	까	거	겨	기	기.	그	고	교	구
	현대 폰트 고딕	가	카	아	나	다	타	라	마	바	파
	현대 폰트 궁체	가	카		나	다	다	라	마	바	확

그림 6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성 합자 지형 비교도 2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지음류 문자		
		ㅅ	ㅈ	ㅊ	ㅌ	△	○	◌	ㅎ	ㅍ	ㅂ
서체	1	사	자	채	△	아	-	혀		ㅍ	
	2	사	지	처	△	아	-	하		ㅍ	
	3	사	자	차	-	아	-	하		ㅍ	
	4	규	비체계적 ←배자								
조선 중기	5	사	자	차	-	아	-	하	싸	새	베
	1	시	지	차	-	아	-	하			
	2		자					하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자음류 문자		
		ㄱ	ㅋ	ㆁ	ㅇ	ㅁ	ㅂ	ㅅ	ㅈ	ㅊ	ㅌ
서체	3 언해남약 증차방		자					하	새	빠	ㅌ
	4 오류행실도		자					하			
	5 고산유고	사									
	1 삼성훈경		지					하	너	미	ㅌ
	2 여사서 (언해)		자					하			
조선 황기 및 현대		규	비체계적 ←배자		ㅅ	ㅅ	ㅅ	하			
		사	자	차	ㅅ	ㅅ	ㅅ	하	견고 ←배자		
		사	자	차	ㅅ	ㅅ	ㅅ	하	이미경 ←공체		

합자에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의 접필 정도를 설음 합자인 ‘나, 다, 라’ 자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나’ 자의 경우, 조선 초기 《경민편》(1519)을 비롯하여 조선 중기 5종 문헌과 조선 후기 2종 문헌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접필하였으나 같은 설음 합자인 ‘다, 라’ 자는 고문헌 종류에 따라 접필을 하지 않은 것이 있다.

4.1.3. 조선 후기 초중성 합자의 특징(그림 5, 6 참조)

조선 후기 3개 고문헌 중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두 초중성 합자의 자형은 조선 중기 고문헌과도 유사하게 서로 비슷하나 《조선문직해》(1924)의 자형은 다르게 보인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에서 합자의 초성을 설음으로 쓴 ‘나, 다, 라’ 자 중 ‘나’ 자는 ‘ㄴ’ 과 ‘ㄸ’을 접필시켰으나 ‘다, 라’ 자는 ‘ㄷ, ㄹ’과 ‘ㅌ’를 접필시키지 않았다. 《조선문직해》의 합자 자형은 현대 폰트체인 견고딕과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선 초기 《월인천강지곡》(1447) 자형의 특징을 절충하였다.

현대 폰트 문자인 견고딕체는 설음의 합자인 ‘가, 카’ 자는 초성 자음과 모음의 상하 폭 크기 차이를 적게 나타낸 반면 그 외 문자들은 크기 차이를 크게 나타내는 등 같은 서체의 문자인데도 다르게 나타났다. 견고딕체 합자 중 ‘샤, 아, 하’ 자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함이 있다. 현대 폰트 문자 중 이미경궁체는 부드러운 필사체의 아름다움을 한껏 풍기는 친근한 서체이다. 약간의 반흘림체인 이 서체는 가로쓰기, 세로쓰기 배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옛문자 중 ‘샤, 아, 하’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2. 초중중성 합자의 글꼴 변천

초성을 자음으로, 중성을 모음으로, 종성을 자음으로 하는 초중중

성 조합의 합자에는 좌우하 위치 합자, 상중하 위치 합자, 좌측 상하·우하 위치 합자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 유형의 합자 자형의 시기별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글 초중종성 합자의 종류와 표기 방법은 최초의 한글 원전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되 조형적 형태에 의거하여 표기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초성 자음 종류: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ㅌ ㄹ, 순음 ㅁ ㅂ ㅅ, 치음 ㅈ ㅊ ㅌ ㅍ, 후음 ㅊ ㅎ
- 중성 모음 종류: 종모음 ㅣ ㅑ ㅓ ㅕ ㅗ
- 종성 자음 종류: 아음 ㄱ, 설음 ㄴ ㄹ, 순음 ㅇ

좌측에 초성 자음 17종과 우측에 종모음 ‘ㅣ, ㅑ(ㅓ, ㅕ, ㅗ)’가 각각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자의 자형을 비교하고자 하지만 고문헌 15종과 한글 폰트에 같은 비교 문자가 공통적으로 고르게 나오지 않아 조선 중기의 합자는 몇 글자씩을 선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4.2.1. 조선 초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초기의 좌우하 위치 초중종성 합자는 고문헌 5종에서 초성이 ‘ㄱ, ㄴ, ㄷ, ㅁ, ㅂ, ㅎ’으로 이루어진 ‘간, 날, 만(명), 반(방), 한(흔)’자를 선택하여 자형 짜임의 요소인 외형, 간가, 위치, 균형 등의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초성 자음 ‘ㄱ, ㄴ, ㄷ’ + 중성 ‘ㅑ’ + 종성 ‘ㅁ’ 인 합자 ‘감, 남, 담’은 종성 ‘ㅁ’의 좌우 폭을 ‘ㅑ’의 세로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나가게 나타냈으나, 중성이 ‘ㅓ’이고 종성이 ‘ㅂ’인 경우는 ‘ㅓ’의 세로선 오른쪽

그림 7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종성 합자 지형 비교도 1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ㅇ	ㄴ	ㄷ	ㅌ	ㄹ	ㅁ	ㅂ	ㅅ	ㅈ	ㅊ
서체	1	금	.	영	남	담	텨	렘	밀	범	.	.	.
	2	.	.	.	늘	눌	.	란	날	.	.	.	.
	3	.	.	.	늘	툴	.	틀	틀	.	.	.	.
	4	각	간	관	갈	감	감	갓	강	곰	.	.	.
	5	관	.	.	난	.	.	란	만	반	.	.	.
조선 중기	1	관	.	.	난	돈	.	.	만	반	.	.	.
	2	.	.	.	늘	툴	.	.	빙	방	.	.	.

모음		아음류 문자			설음류 문자				순음류 문자			
		ㄱ	ㅋ	ㅇ	ㄴ	ㄷ	ㄹ	ㅁ	ㅂ	ㅅ		
서체	3	안해남악 증치방				노	들			명	방	
	4	오물행길도	각			노	들	렁		명	방	
	5	고산유고	간			노	들	란		만	반	
	1	삼성훈경	각			노	들	렷		뵤		
	2	여사서 (언해)	가			노	들	렷		명	방	
3	조선문지해	각	꺾			노		렁		밍	뵤	
4	현대 폰트 고딕	각	꺾			노	ㅂ	렷	ㅂ	밍	뵤	ㅅ
5	현대 폰트 궁체	가	꺾			노	ㅂ	렷	ㅂ	밍	뵤	ㅅ
		조선 후기 및 현대										

그림 8 조선 시대 고문헌과 현대 한글 폰트의 초중종성 합자 지형 비교도 2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자음		
		ㅅ	ㅈ	ㅊ	ㅌ	ㅍ	ㅇ	ㅁ	ㄴ	ㅇ	ㄱ	ㅋ	ㅌ
서체	1	심	췌	침	췌	췌	읍	읍	읍	읍			
	2		췌	췌	췌	췌	읍	읍	읍	읍			
	3						읍	읍	읍	읍			
	4	툼	툼			툼	읍	읍	읍	읍	툼		
	5		잔			잔	읍	읍	읍	읍	잔		
조선 중기	1	산		췌			읍	읍	읍	읍	산		
	2	샹											

모음		치음류 문자				후음류 문자				병서자음	
		ㄸ	ㅌ	ㅕ	ㅛ	ㅜ	ㅇ	ㅇ	ㅇ		
서체	3	양							한	날	돋
	4	양							한		
	5	산					안				
	1	상							한	민	성
	2	상							한		
조선 후기 및 현대	3	쌍							형		
	4	상	жат	침	영표	양			힘		
	5	상	жат	침	영표	양			힘		

에 나가지 않게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은 종성에 ‘ㄱ, ㄴ, ㄷ, ㄹ’이 들어가는 모든 합자에서도 나타난다. 조선 초기 문헌 중 1400년대 고문헌은 딱딱한 느낌의 현대 고딕체 유형에 가깝게 자형을 형성하였고, 1500년대 고문헌은 부드러운 느낌의 정자체 유형에 가까운 자형을 형성하였다. 또한 1400년대 《훈민정음》 해례본(1446)을 비롯한 《몽산화상법어약록》 언해(1472)의 초중종성 합자는 정적인 느낌의 자형이 형성된 반면, 1500년대 《훈몽자회》(1527), 《경민편》(1519)의 합자들은 종성 ‘ㅇ’을 제외하고는 종성 좌우 폭을 지나치게 크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4.2.2. 조선 중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중기 고문헌 5종의 초중종성 합자의 자형은 1600년대 문헌에서는 1500년대 말 문헌의 합자 유형과 비슷하다가 1700년대 말 문헌에서는 종성의 좌우 폭이 점점 좁아지고 각 서선의 굵기와 방향에 변화를 많이 주어 나타냈다.

조선 중기에는 정적이면서도 종성의 좌우 폭을 크게 나타낸 《언해 태산집요》(1608)의 자형에서 종성의 좌우 폭이 좁아진 《오료행실도》(1797)에 이르기까지 자형 변화의 규칙성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형도 나온다. 특히 《언해납약증치방》(1700년대 말)이나 《고산유고》(1798)의 합자 중에는 종성 ‘ㄴ’의 좌우 폭을 지나치게 크게 나타낸 경우도 있다.

4.2.3. 조선 후기 초중종성 합자의 특징(그림 7, 8 참조)

조선 후기 고문헌 3개의 합자 자형은 《조선문직해》(1924)를 제외한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합자 자형이 유

사한데 이 중 《삼성훈경》 합자의 키가 큰 편이다. 《삼성훈경》과 《여사서》 언해 합자의 좌우 폭 크기는 조선 중기 합자들에 비하여 작아 보인다.

《삼성훈경》(1880)과 《여사서》 언해(1907)의 합자는 자형의 키를 작게 하고, 서선의 처음과 끝 부분 획형을 각이 생기게 강하게 나타냈고, 가로선은 가늘게 세로선은 굵게 켜기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ㅇ’의 획형을 원형이 아닌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등 방각본(方刻本)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다.

현대 폰트 견고딕체는 초중종성 합자의 초성 좌우 폭 크기를 초성 왼쪽 끝에서 오른쪽의 중성 ‘ㄱ, ㅋ’의 수직 서선까지의 폭 크기와 같게 나타냈다. 이러한 중성 크기 배획 규칙은 《훈민정음》 해례본 합자 중 중성에 ‘ㄱ, ㅋ’가 아닌 ‘ㄴ, ㄷ’가 들어가는 문자의 중성 배획 규칙과 같은 것이다.

현대 폰트 궁체인 이미경반흘림체는 종성의 좌우 폭을 작게, 자형의 상하 폭을 크게 나타내되 중성 모음과 종성 자음을 연결하여 유연한 서체가 되도록 개발하였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조선 시대 초·중·후기에 나온 한글 고문헌 15종과 현대 폰트 2종의 한글 글꼴의 조형적 특징을 변천사적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모음, 자음, 초중성 합자, 초중종성 합자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고문헌 자료 15종의 한글 글꼴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자모음의 획형은

대소·장단·방향·곡직·방원·조세·전절·접필(大小·長短·方向·曲直·方圓·粗細·轉折·接筆) 등의 요소에 따라, 합자의 자형은 외형·간가·위치·중심(外形·間架·位置·中心) 등의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15종의 한글 글꼴 자료가 분량 면에서는 조선 시대 전체 한글 글꼴 변천의 특징을 분석하기에 객관성은 적은 편이나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고문헌들이기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글 글꼴 변천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모음 획형 변천의 특징

고문헌에 나타나는 모음 11종과 자음 17종의 기본 획형은 ‘·, —, |, /, ㄱ, ㅅ’으로 분석된다. 기본 획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모음 획형 28종은 조선 초기의 굴림체 글꼴에서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로 오면서 차츰 바탕체 글꼴 유형으로 변하였다.

- 모음의 변화: 《훈민정음》 해례본 ‘ㅏ, ㅑ, ㅓ, ㅕ’의 세로선과 떨어진 둥근 점은 선으로 변하여 세로선과 접필되었고, 일정한 굵기의 세로선은 굵기가 다양한 모음 획형으로 변화되었다.
- 자음의 변화: 자음 획형도 일정한 굵기와 수직, 수평 방향이던 획형이 변하고, 일부의 획형 자체가 변하였다. 가장 많이 변화된 자음은 설음 중 첫 가로선 길이가 변형된 ‘ㄷ, ㅌ’과 서선 방향이 변한 치음 ‘ㅈ, ㅊ, ㅊ’이다.

둘째, 합자 자형의 변천적 특징

받침이 없는 초중성 합자와 받침이 있는 초중종성 합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 종성 자음의 크기와 위치에 대한 결구 상태의 변화가 컸다.

- 초중성 합자 변화: 초성과 중성의 크기 차이가 작은 합자에서 조선 초·중·후기를 거치면서 초성과 중성의 크기 차이가 커져서 초성 자음이 아주 작아진 글꼴로 변천되었다. 경직된 그림 문자에서 유연한 쓰기 문자로 변천되었다.
- 초중중성 합자 변화: 초중성 부분의 좌우 폭과 중성의 좌우 폭 크기 차이가 아주 작은 합자에서 점점 큰 합자로 변천되었다. 초중성 부분 획형과 중성 부분 획형이 서로 호응하는 느낌의 합자로 변하였다.

셋째, 현대 한글 폰트 개발 활용의 제안

조선 초·중·후기 한글 글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조선 시대 고문헌 한글 글꼴의 아름다움과 조형적 가치를 확인했다. 이 고문헌 글꼴을 새로운 한글 폰트 개발에 활용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고전 한글 글꼴 개발: 앞의 내용에서 밝힌 고문헌 13종의 각종 서체를 한글 폰트로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현대 한글 폰트 개발: 고문헌 한글 글꼴의 특징을 잘 반영하여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한글 글꼴 개발 사업에 충실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박병채(1991), 논주 월인천강지곡-원본영인본, 세영사.
- 박병천(1983), 《한글 궁체 연구》, 서울 일지사.
- 박병천(2001),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5, 16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1), 중국 조선족 한글 글꼴 개발의 실태와 전망, 555돌 한글날 기념 글꼴 학술대회, 한글 글꼴 개발의 미래 논문집,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병천(2002), 《한글 판본체 연구》, 서울 일지사.
- 박병천(2002),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7, 18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3), 옛문헌 한글 글꼴 발굴 복원 연구 19, 20세기 문헌,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 박병천(2003), 한글 글꼴의 생성-변천과 현대적 전개 고찰, 한중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동양예술학회, 중국연변대학교.
- 박병천(2004), 옛 문헌 한글 글꼴 개발 실용화 방안 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사업보고서.
- 박병천(2007), 《한글 서간체 연구》,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 박병천(2011~2013), 한글서예사적 측면에서 본 고전 자료 해설, 《월간 서예》(연재 1회~25회, 2011년 9월호~2013년 9월호), 서울 미술문화원.
- 박병천 외(1997), 통합 체계로서의 한글 폰트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홍익대학교 산디연구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4),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의 한글 서체를 컴퓨터 글자체로 개발-최종개발보고서.
- 전학석 외(2000), 중국 조선족 언어 문자 교육 사용 상황 연구, 중국연변대학출판사.

한국글꼴개발원(1998~2003), 《글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문화관광부.

한국글꼴개발원(2000),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1998), 《훈민정음》(영인본), 도서출판 해성사.